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english.gpnews.org
일본어판 japan.gpnews.org
중어판 china.gpnews.org



2010. 10. 3 창간

창간13주년

2023. 9. 17 ~ 2023. 10. 7 제288호

국내 개신교 인구 15% 감소... 10년 후엔 10% 될 수도

우리나라 개신교인 비율이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15%까지 줄었으며, 향후 10년 뒤에는 개신교인이 총인구의 10%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난 5일 넘버즈 206호를 통해 밝혔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지난 25년에 걸쳐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인식을 추적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의 내용을 토대로 통계 데이터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1998년 개신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7%였다가 2012년에 22.5%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20.3%, 2022년에는 15%로 하락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이러한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10년간 단순 하락 기울기를 반영, 향후 10년 뒤를 예상하면 최악의 경우 10.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속도로 하락한다면 향후 10년 뒤에는 개신교인이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추론이다.

또한 개신교 하락의 주원인은 종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인식의 저하, 기독교의 형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나타났다. 과거 개신교였다가 현재 무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가 35%로 가장 높았으나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란 응답도 10명 중 3명꼴(29%)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자료에 따르면 국내 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의 핵심 교리를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종교의 교리를 동의하는 종교믹스와 다원주의의 성향이 나타났다. 개신교인의 경우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종말론, 유일신

앙에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50%와 63%로 나타났다. 특히 하나의 종교가 아닌 여러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보는 '종교 다원론'을 믿는 경우가 개신교인 3명 중 1명꼴(32%)로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개신교인 가운데 윤희설에 동의하는 경우가 13%나 됐다. 이는 불교인이 윤희설에 동의하는 비율이 21%인 점을 감안할 때 13%는 매우 높은 편이다. 반대로 불교인이 기독교인의 종말론에 동의하는 비율은 19%나 돼, 종교를 막론하고 타종교 교리에 대한 동의율이 적지 않았다. 이에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이 두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종교인들에게 종교믹스적 성향과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이 상당한 수준으로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은성도 목사 (동일소망교회)

“지금 열방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군 복무 중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철책 근무를 하며 북한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됐다. 고난의 행군을 하는 북한 모습을 보며 북

한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력한 부담을 갖고 북한 선교에 뛰어들게 됐다. 그러다 탈북민을 섬기던 중 중국 감옥에 수감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던 은성도 목사는 복음통일을 꿈꾸며 오늘날도 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

• 3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71)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모두 다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대체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신다(無所不在)'는 뜻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단히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만약 내가 집을 떠나 여행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가족과 함께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에 부딪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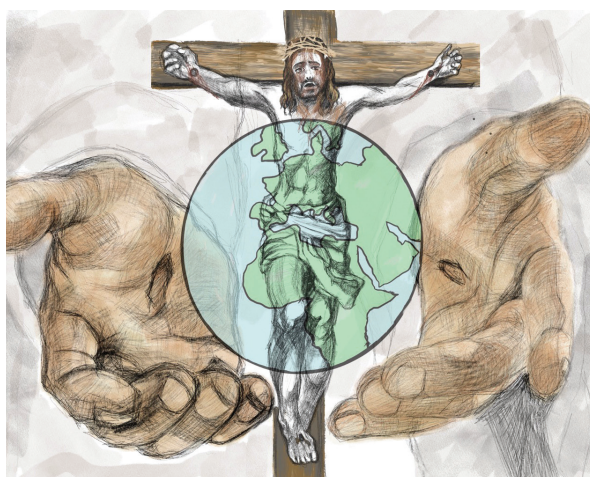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므로 나와 그리고 내 가족과도 얼마든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이러한 특성은 대단히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잘못했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특성은 범신론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범신론은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계시므로 '만물이 곧 하

나님'이라는 논리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의 한 부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범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기운'이나 능력, 또는 '철학적 존재'로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이해가 아닙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



일러스트=김경선

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이사야 40:28)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은?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 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불탄 파키스탄 기독교 마을, 십자가 은혜의 위로



▲ 성난 폭도들에 의해 무너지고 불에 탄 파키스탄의 교회 건물. 출처: 본지 통신원

지난 8월 17일 파키스탄 자란왈라 마을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기독교인이 쿠란을 찢었다는 주장만으로 성난 무슬림들은 하루 만에 20개 이상의 교회와 수백 채의 집을 불태웠다. 인구의 96%가 무슬림인 파키스탄은 오픈도어 선교회가 선정한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할 만큼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다. 이 나라에선 쿠란을 비판하거나 찢으면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파키스탄에

서는 2020년 35명이 신성 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또한 정부의 처형이 아니더라도 무장단체들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은 폐허가 된 교회로 돌아와 교회 골목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서 이들은 환난과 어려움 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순교자의 피가 흐른다 해도 묵묵히 예수를 따르며 주의 생명을 전할 것이다. 그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생명력이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발자국을 따른 이들의 발자국이 주님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졌을 것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벧전 5:10) [GPNEWS]

핀란드 기독교 정치인, ‘종교적 신념’ 무죄 이후 ‘혐오 표현’ 이슈로 또다시 법정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핀란드에서 결혼과 성에 대한 기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던 국회의원이 ‘혐오 표현(hate speech)’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서 서게 됐다. 결혼과 성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적 신념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가 1년 전 무죄 판결을 받은 페이비 레세넨에 대해 검찰이 이번에는 ‘혐오 표현’을 이유로 고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25년 이상 국회의원을 한 레세넨과 유하나 포올라 주교는 헬싱키 항소법원에 도착해 검찰의 항소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인권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이 밝혔다. 레세넨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누구나 국가 기관의 검열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굳건히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거의 20년 전에 레세넨이 쓴 소책자에 집중해 그 내용이 ‘모욕적’이며 ‘성적 권리’를 침해했다

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시작했다. 검사는 레세넨이 책자에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모욕적’이며 성경 구절에 대한 그녀의 해석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DF에 따르면 검찰은 “요점은 그것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모욕적이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종교의 외적인 표현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성경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성경 구절에 대한 레세넨의 해석과 의견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세넨 의원은 2004년 소책자 내용과 2019년 라디오 토론, 교회 지도부를 비판하는 성경 구절이 포함된 트윗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회 소속 포올라 주교는 약 20년 전에 레세넨의 소책자 ‘하나님이 만든 남성과 여성: 동성애 관계는 기독교의 인간 개념에 도전한다’를 출판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두 피고에 대한 혐의는 핀란드 형법 중 ‘전쟁 범죄 및 반인도 범죄’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신념과 종교적 표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2022년 3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헬싱키 지방법원은 만장일치로 정부가 ‘성경적 개념’을 해석해서는 안되며 문제의 발언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검찰에게 재판에 대한 법적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페이비 레세넨 의원에 관한 사건은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동성애 관련 반대 발언을 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위협과 대가를 치르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핀란드는 2004년 평등법(Yhdenvertaisuuslaki)이라는 명칭의 포괄적인 차별금지조항을 지정하고 있는데, ‘차별 및 피해자와 금지’를 정한 3장 8조를 통해 국민은 나이, 출신, 국적, 언어, 성적 지향 등 개인과 관련된 그 밖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설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美, 성전환 수술 받은 청소년... 4년 새 3678명

미국 전역에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12세에서 18세 청소년 약 3678명이 신체를 손상시키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 1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학협회저널 네트워크 오픈이 발표한 ‘미국의 성전환 수술 전국 추정치’ 성전환 수술을 받은 4만 8019명의 환자 중 7.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시술을 받은 환자의 대부분은 19~30세(52.3%)였고, 31~40세는 21.8%로 나타났다.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면서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미국의 청소년들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된 존재임을 깨닫고 돌이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서게 하소서.

키프로스, 이주민 대상 폭력 사태 발생... 반(反)이민 정서 커져

키프로스에 이주민들이 급증하면서 반(反)이민 정서가 커진 가운데 약 500여 명이 이주민과 외국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난동을 부려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을 인용, 국내 언론들이 4일 전했다. 이번 사태로 20여 명이 체포됐으며, 이주민들의 가게가 파손되고 이곳저곳 방화가 일어났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3명은 강도당했으며, 쿠웨이트 여행객들도 폭행당했다.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생명을 건지기 위해 고국을 떠난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는 키프로스가 되게 하옵소서. 이주민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과 인력, 상황을 허락해주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나라 되게 하소서.

韓 아동·청소년 4명 중 1명... ‘행복하지 않다’

우리나라 만 10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4명 중 1명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 아동권리보장원이 ‘2022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스스로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은 72.7%, ‘행복하지 않은 편’은 27.3%로 나타났다. 불행한 주된 원인을 학업 문제(19%)와 가정의 불화(19%)로 꼽았다. 우리의 다음세대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해주시시오.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다음세대로 회복시켜주소서.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9월 18일 ~ 2023년 10월 7일

9월 18일 ~ 9월 23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9.19,21~23(20~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9.20~22(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9.21~23(18시)~24(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9.22~23(05~17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23, 9.23(09~18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그 외 9교회 진행중.

9월 25일 ~ 9월 30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9.25~27(10~16시) ▶서울 마포 / 금강야산병원(이**)010-5248-4147, 9.25~29(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9.27(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9.28(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9.28(00시)~29(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공동체(정**)010-3697-0641 9.29(15~20시), 10.1(15~17시) ▶서울 평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7교회 진행중.

10월 2일 ~ 10월 7일 10.2(0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 010-9326-7767, 10.2~4(13~17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10.2~7(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선교회(권**)010-7754-1726, 10.5(0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10.6(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0.6(14~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10.6(12시)~7(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9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복음 통일을 꿈꾸는 온성도 목사 (통일소망선교회)

• 1면에 이어

- 어떻게 북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군대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았습시다. 1996년도에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철책 근무를 서면 북한이 내려다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한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당시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때여서 TV를 통해 북한의 어려운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율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죽는다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 나중에는 주님이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군요. 그런데 북한에 갈 방법이 없으니 막연했어요.”

전방 철책 근무 중 북한 바라보며 북한 선교 꿈꿔

- 갈 수도 없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이 정말 막연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제대를 하고 북한 사역하는 단체들과 연결해서 중국 훈춘으로 단기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있었어요. 한 미션홈을 방문했는데, 성경 전 독을 목표로 양육받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많이 부끄럽고 도전이 됐습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며 ‘이 길이 내 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단기선교를 같이 갔던 한 자매를 보게 됐어요. 열심히 탈북 자매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 자매와 이 길을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했습니

다. 그런데 자매가 이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탈북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그들에게서 변화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기는커녕 사랑으로 섬겨도 날마다 싸우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나 교제는 1년 반 넘게 이어졌고,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북한선교 모임이나 선교단체는 종종 찾아가서 교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2004년에 한 탈북민 전도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전도사님을 통해 어떤 길이 열렸나요?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정말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도 안됐는데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했어요. 그분의 개척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됐

도하고 심방하고, 이삿집도 날라주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밤에 부부싸움이 났다고 연락이 오면 달려가서 말리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3년이 지나자 마음과 육체의 한계가 오더군요. 힘든 상태에서 휴가를 얻어서 복음학교를 가게 됐어요. 충만한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에 채워지면서 많이 회복되고 다시 기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교회가 조금씩 자리 잡아갈 때 성도님들과 함께 중국으로 단기선교를 갔습니다.”

탈북민 출신 사역자와 동역

- 중국에서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으셨나요?

“많은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로 팔려와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더군요. 중국 돈으로 1만 위안, 2만 위안에 팔려온 사람도 있었어



제공: 통일소망선교회

사람들로 세워달라는 바람이지요. 훈련받은 자매들이 주위에 아는 자매들과 교체하게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심방도 하면서 이들이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코로나 때는 온라인 양육을 시작했어요.”

- 또 다른 사역도 있나요?

“북한에서 외화벌이로 내보내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은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고 생각이 바뀌어요. 이분들은 일자리 소개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 고려인들을 의지하죠. 고려인들은 선교사들과 연결돼 있고요. 그렇게 선교사님과 연결된 탈북민들은 양육을 받아요. 우리는 이 사역을 ‘서상윤 사역’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19세기 말 중국 땅에서 성경을 번역하던 존 로스 선교사에게 복음

서, 또 중국에서 쫓겨 다니며 엄청난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새롭게 변화되더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파송됐고, 한국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1462명을 구출했어요.”

복음 만난 탈북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

- 탈북민 구출 사역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너무 새롭습니다.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요.

“2017년 국경을 넘기 위해 제3국으로 가던 분들이 8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험하다며 피신하라는 연락을 받았습시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에 공항으로 갔는데, 수십 명의 공안들에게 체포됐습시다. 많이 막막하더군요. 형사들의 협박과 욕설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해야 할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조를 거부하니깐 한번은 고문실에 갇혔습니다. 철 의자에 발과 손을 다 묶더군요. 사람들이 감옥에서 고문 당한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고문 당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문은 안하고 책임자가 와서 마지막 심문을 하더군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중국에 와서 어떤 처우를 받는지 아느냐.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인권 유린 당하며 고통당하는 영상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다.’ 제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일 이후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붙잡힌 탈북민 8명이 풀려나고, 아내와 아이들은 일주일만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북경 감옥으로 이송돼 재조사를 받게 되고 20년 형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죄책감이 물려오고 낙심감을 느끼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또 사탄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 보배이신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엄청난 위로를 부여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가슴 깊이 감동이 물려왔습니다.” [GPNEWS] C.K.



▲ 탈북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온성도 목사. / 탈북민들과 함께 예배하는 온성도 목사. 제공: 온성도 목사



어요. 그분이 탈북민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중국에서 성경을 200독씩 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하던 분들이 한국에 오면 돈을 쫓아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실망감이 컸을 때였는데, 이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개척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자주 가서 도왔습니다. 그러다 전도사님이 교회 사역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주셔서 응답으로 알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됐어요. 탈북민들을 전

요. 한국 돈으로 하면 겨우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되는 돈에 팔려와서 농촌에서 신분도 없이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됐어요. 섬겨야 할 탈북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전폭적으로 섬기기 위해 2009년도에 통일소망선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선교사 부부를 파송해서 중국에서 많은 자매들을 돌봤어요. 재정도 여건도 안됐지만 주님은 해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처음 선교사님들은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탈북 여성들을 구출하고 섬겼어요. 몇 명을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북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야 되니까 교회는 나오지 않고 술집을 다니거나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안될 거 같아 이들을 먼저 중국에서 훈련시키고 한국으로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몇 개월 동안 양육했어요. 이렇게 훈련원이 세워졌어요. 우리는 탈북 여성들을 평강공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중국에 비참하게 팔려가서 신분도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자매들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을 받은 서상윤이 국내에 들어와 소래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요.”

- 북한 사역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움도 많으셨지요?

“2014년에 중국에서 탈북민을 섬기던 선교사님들이 공안에 체포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네가 중국에 들어가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중국에 직접 들어가서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양육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도움을 요청해 오는 탈북민들이 많아졌어요. 목숨을 걸고 한밤 중에 차가운 강을 헤엄쳐 건너온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백두산을 넘어왔더군요. 12일 동안 밤마다 이동해서요. 8명이었던 한 가족이 북한을 탈출해 나왔는데 절반은 공안에 붙들려가고 절반은 도망쳐온 분들이 있었어요. 또 자매 2명이 밤중에 두만강을 건너오다가 한 명이 물살에 떠내려가서 혼자 살아서 온 자매도 있었어요. 복송을 당해 북한 감옥에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다시 탈북한 분도 있었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죽음 앞에서 두렵고 숨 막히게 살아왔던 수많은 탈북 형제, 자매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어요. 이들은 북한에



▲ 탈북 여성들과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제공: 온성도 목사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창간 13주년을 맞은 동역자의 소리

복음기도신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문입니다

창간 13주년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잠 25:13)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잠 25:25)

복음기도신문이 창간 이후 걸어온 지난 13년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의 현기증 나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와 질서의 붕괴, 충격과 혼돈의 말세를 현실적, 영적으로 겪으며 체감하는 때입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유일한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빛 비추어 하나님 나라와 선교완성을 이뤄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눈과 귀가 되어줄 미디어는 폭풍 치는 밤바다에 등딯불과 같고 미로를 헤매는 자에게 노련한 안내자를 만남 같은 생명 사역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기에 복음기도신문이 특별한 것은 첫째 : 그를 보낸 주인에게 충성된 종으로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언론으로(잠 25:13)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원한 성경 진리에 신실하고 세상 유행, 인간의 지혜와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둘째 : 목이 타는 사람들,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 - 하늘에 속한 참 생시요 순종으로 맛을 내는 실제 된 믿음 - 이 생명의 기운을 담아 전해지는 신문이기에!(잠 25:25)

오직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섬김이 헌신과 기도로 VIP 독자들들과 함께 이뤄온 기적의 13년과 미래를 축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로고미션 대표)

삽화를 그릴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복음기도신문 13주년을 기념하여 함께 축하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주의 선하심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고 나누며 기뻐하고 애용하며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보게 되어 늘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저 또한 삽화를 그릴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짐 없이 결국 내가 아닌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깨뜨리는 시간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 기쁨으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나로 절망 된 고백에 멈춰 끝나는 것이 아닌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고백을 그림으로 섬길 수

있음이 설레고, 승리하신 주님을 경합하며 저 또한 말씀을 통해 다시 세워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에게도 고됨과 수고로움이 아닌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대가를 보지 않고 주님만 소망하며 만방에 기쁜 소식들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는 선교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빛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기도신문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기도신문 13주년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은선 선교사
(인도네시아, 일러스트레이션)



정신 어려움 갖는 교인들과 전화상담으로 6년간 함께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나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할 수 있는 전도용 상담전화 ‘복음의 소리 316전화’가 2017년 여름 개설되어 지난 6년간 많은 전화 내담자들을 만났습니다.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서도 각 개인들의 영적 필요와 삶의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여러 질문들에 답해주기 위해 그동안 여러 상담 섬김이들이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또 함께 고민하면서 사역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예상치 못했던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는데, 막연하게 구원, 믿음,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하기 원하는 분들이 주로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정신적 어려움(정신 질환으로 추정되는)을 가진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상담 요청하는 전화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부어져 참으로 안타깝고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처한 모든 문제의 답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그 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담 전화 건도 줄고, 내담자의 정신의학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필요에 응대하지 못하는 어려움들로 인해 316전화 상담 사역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 어려움들과 신앙적 고민들로 인해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친히 살피시며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또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또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양육하는 일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상담으로 섬기며 수고한 동역자들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위로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권서영 전문의
(서울, 정신건강의학과),
김정화 목사(경북 의성,
복음의 소리 316상담 전화)

번역으로 시작, 웹사이트 개발로 동역합니다

할렐루야! 복음기도신문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음기도모임에서 복음기도신문 창간호를 받아 보았던 것이 벌써 13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에서 순회선교단과 복음과기도미디어는 빼려야 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순회선교단, 김용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복음과기도미디어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그 광대하고 위협한 광야, 곧 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은혜 안에서 지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번역을 시작한 것이 9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맡겨주신 카테고리가 김용의 칼럼이었습니다. 번역을 위해서는 말씀을 씹어 먹듯이 본문에 집중해야 했고, 그러는 중에 열어주시는 복음의 영광과 은혜, 사랑 때문에 눈물로 자판을 치던 날이 많았습니다. 작은 순종으로 시작한 이 일은 지나온 길이 전부 부정당한 것 같고, 앞으로 나갈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을 복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신 것처럼 앞으로 20년, 30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기도신문이 수가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길 바라며 일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이지수 집사(서울, 웹사이트·일본어 번역)

책에 기록된 증인들의 삶을 정리하며 은혜 누립니다

할렐루야! 복음기도신문 13주년 축하드립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 읽었던 책을 소개하게 되면서 부즈 인 박스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뜨거운 가슴으로 읽었던 스티븐 룽구의 이야기를 야기 엄마가 되어 다시 읽으며 은혜에 잠겼던 때가 생각납니다.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작은 여인 글래디스 에일워드, 고난의 한복판에서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높였던 잔느 귀용.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을 소개하고자 다시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로 책을 읽기 어려웠던 시기에 부즈 인 박스를 통해 오 히려 저를 진리로 깨워주시고 증인들의 삶을 보여주시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번엔 어떤 책으로 내게 말씀하실까?’ 기대하며 그때 저에게 꼭 필요한 책을 제 손에 쥐어 주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김용의 선교사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는 귀로 들었던 때와는 다르게 글로 된 메시지를 읽으며, 한 단락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깨닫게 하시려고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언어들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기도신문을 만들며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었을지 생각해봅니다. 1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시는 순종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복음기도신문을 통해 나와 우리를 복음으로 일깨우시고 열방을 살리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정준영 선교사(순회선교단, 기고)

① 복음기도신문 발송 작업 현장 ② 중보기도 동역자들과의 교제 ③ 전도할 때 편리하게 나눠주기 위해 복음기도신문을 접고 있는 동역자들

번역으로 물 떠온 하인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복음기도신문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영어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3살 아이를 키우며 회사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짝 찬 하루를 쪼개어 추가로 번역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거나 회사 일이 유난히 많은 등 변수가 생길 때는 밤잠을 줄여가며 번역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첫 마음을 잃고 하기 싫은 마음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번역하기 위해 책상에 앉을 때는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기사를 번역하면서 주님은 항상 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나라를 향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보석 같은 믿음의 증인의 삶을 보며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매번 주님은 나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순종의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사실 저의 영어 실력이라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복음기도신문을 번역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은 나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전 1:27)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주 믿음을 쓸 수 있게 하심에 감사, 부족한 재능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쓸 수 있음에 감사, 물 떠온 하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기쁨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고 출판하는 것이 마치 바다에 돌 하나를 던지는 것만 같다고 편집장님이 표현하신 일을 묵묵히 하신 복음과 기도미디어 모든 선교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누군가는 이 돌을 맞고 정신도 차리고, 이 돌을 밟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혜연 집사(경남 경산, 영어 번역)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동역의 은혜

5년 전이었네요. 온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고는 찌르는 고통 가운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 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알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마 6:26) 나의 절망스런 지금 형편보다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때 주님이 특별히 6개월의 치료 기간을 통해 더욱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이 기간에 잃었던 살아있는 순교자 안이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으로 뷰즈 인 북스를 시작했던 기억이 새롭네요. 10대 청소년 시절에 깨알같이 쓰여진 책을 다 읽지 못하고 지나온 기억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그분의 책을 몇 권이고 찾아 읽으며 부끄러움에 여러 번 눈물을 삼켰던 일이 기억납니다. 주님을 믿으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도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책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던 시간이었네요. 그 후로도 계속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도전을 함께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품으로 떠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주시는 증인들의 이야기들이 오늘 나의 삶을 책임져주시는 우리의 이야기도 되니까요. 참, 그리고 보니까, 맡겨진 부분은 아주 작는데, 글을 쓰며 누리게 된 복은 너무 큰 것 같네요. 복음기도신문의 창간부터 지금까지 셀할 수 없는 축복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셨음을 믿습니다. 복음기도신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복음과 기도의 통로로 더욱 사용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양동원 선교사(순회선교단, 기고)

복음기도신문을 중국어로 번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복음학교를 참석하고 난 다음 제가 받은 축복을, 제가 누리게 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저의 자리에서 쓰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음기도신문에서의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따라 광고가 얼마나 뜨겁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요셉의창고에서 함께 쓰임 받을 자를 구한다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조금이나마 쓰임 받고 싶어 중국어 팀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기도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어 번역으로 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 사양할 마음도 있었지만 김용의 선교사님의 말씀과 순회선교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소망을 받았기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길 소원하면서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글이라도 처음 번역해 보는 것이기에 단어 선별부터 번역 문장이 맞는지 다시 번역기에 돌려가면서 기사를 번역했습니다. 원래 복음의 일은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더 천천히 말씀이나 간증을 읽게 되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또한 쉬고 싶고, 저의 일로 인해 힘들어 할 때 복음기도신문에 귀한 선교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서 응원해 주시는 것에 다시 힘을 내며 지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역 기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만 넘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번역하는 것, 번역을 통해 기사가 올라가는 것을 통해 예수님만 증거되고, 그래서 예수 아는 물결이, 예수 믿는 물결이 중국 땅, 중화권 영혼들, 온 열방에 흘러가기만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복음기도신문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자신을 드리고 계신 선교사님들 모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한결같이 응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유정원 목사(서울, 중국어 번역)

신문에 소개되는 열방소식 보며 기도로 동역의 기쁨 누리

존재적 죄인인 제가 복음을 모를 땐, 부귀영화를 누리보겠다고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은 복음이 실제 되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는 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이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이렇게 행복한 걸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음기도신문과 함께 하며 때때로 올라오는 열방의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만 의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김명숙 권사(부산, 중보기도)



복음기도신문을 전도지로 수년째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기도신문을 처음 접한 건 2012년 10월이었습니다. 신문에 기고된 글, 그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에 큰 충격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대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특별히 ‘전도’라는 직임을 감당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매체가 바로 복음기도신문이었습니다. ‘전도’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선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도지를 살펴보았지만 대부분 교회 홍보라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심지어는 세상의 부귀영화, 번영을 추구하는 방법이 버젓이 적혀 있는 전도지를 보면서, ‘기왕에 전도를 결단한 마당에 올바른 전도지로 전도하자.’는 마음으로 복음기도신문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잘 선택했다, 지금까지 후회가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할 만한 게 거의 없었는데, 복음기도신문으로 전도하는 일은 아직까지 후회 없는 선택, 잘 선택한 일로 제게는 남아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길을 가던 사람이 복음기도신문을 받고 나서는, 가던 길 멈추고 진지하게 읽으시는 일, 신앙적인 고민을 묻는 이에게 신문에 기재된 증인

들을 소개하며 그들과 내가 만난 복음을 전했던 일, 어떤 이는 “우리는 그런 전도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쁜 소식 전하는 사람이거든요!”라고 말하길래 자세히 들여보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어서, 내가 만난 복음을 정직하게 나누고 나니 “당신이 나눈 이야기가 이 신문에 있으면 받아가겠다.”며 이단들이 전도된 일, 전도지가 신문으로 되어 있어서 전도하는 날 비가 오면 안되기에, 매주 금요일마다 비를 그치게 해주시거나, 전도하러 나가면, 딱 그 시간에만 비가 그치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접은 복음기도신문에, 스티커와 사탕을 붙이며 ‘복음기도신문에 기고된 증인처럼 이 전도지를 받은 누군가의 삶도 주님께서 절망을 통해 완전한 복음으로 변화시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복음기도신문이 멈추지 말고 주님의 부름 받은 사명을 계속 감당해 주시길, 메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복음기도신문 기고면에 가득 넘치길, 지면이 부족해서 글을 다 실을 수 없을 만큼 복된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넘치는 좌표로 계속 서 있으시길 또한 소망하며 글을 담습니다. 가까운 곳, 먼 곳에서 항상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GPNEWS]

임치운 목사(충남 대전, 기고·316전화상담·사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절대! 전부의 복음! (6)

오직, 절대, 전부에서 '나, 나, 나'로 바뀐 저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앞치락뒤치락 거짓말하고 배반하고 연약한 자들이었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에 같이 참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던 자였다. 입이 천만 개라도 '주님을 못 봤다. 못 믿겠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자가 가롯 유다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제자들

멀리서 잠깐 구경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죄인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재, 그 현현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삼 년 반 동안이나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기가 막힌 섬김을 받고, 그

가르침과 그 체험과 그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에게 "오직!"이었던 것은 오직 "나, 나, 나!"였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다. 그 말의 의미는 "넌 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입은 자야. 너는 내 안에 있을 때 존귀와 영광과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야."라는 의미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그런데 이들은 악한 반역자인 사탄의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된다."는 말에 현혹이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사랑을 배신한



일러스트=이예환

죄의 원형의 모습이였다. 이 죄의 저주를 받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자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절대", "전부"의 에너지

가 "나"에게 향하게 됐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할 에너지가 "오직", "절대", "전부"로 "나, 나, 나"로 바뀐 저주였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오직", "절대", "전부" 이 에너지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유언하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2018년 8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즈

Jakins & Boaz

1 투어

- 단기선교, 아웃리치 패키지 현장 선교사 연결(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 항공권
- 성경문화탐방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선교사 가이드
- 신혼여행
- 복음기도동맹군 신혼 여행지 숙소 & 가이드 연결
- 항공권 발권 대행

2 도서

- 김용의 선교사 저서, 순회선교단 선교관학교 & 중보기도학교 필독서
- 야긴 추천도서 50% 할인

3 전도용품

- 메시지 머그컵·텀블러
- 복음 마스크

문의 |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출시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병원을 주님께 드리며 재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제자되어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모집

1. 삼성초대교회 부교역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 평신도사역자 등 무관) - 삼성연합의원 원목 겸임
2. 간호조무사 (영양사 자격소지자 우대)

문의

삼성연합의원 · 삼성초대교회 | ☎ 010-8528-3217

삼성연합의원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20



유럽의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복음 축제



▲ 스웨덴에서 열린 영어 복음 캠프. 제공: WMM 유럽지부

지난 7월,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복음 축제가 스웨덴에서 열렸다. 스웨덴을 비롯해 노르웨이, 미국, 독일, 한국 등 여러 국적의 청소년들이 모였다. 첫 번째 주장은 순회선교단 유럽지부 주관의 영어 복음 캠프로 진행됐다.

첫날, 훈련생들은 강의에 집중해 강사를 비롯해 모두가 힘이 솟았다. 노르웨이 국적의 한 훈련생은 강의를 듣고 자신이 정말 복음 앞에 전심으로 서고 싶다고, 보충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렇게 첫 번째 주제 '복음의 영광'이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죄에 대한 메시지

가 선포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처음과는 다른 반응들이 나왔고, 아프다는 아이들이 생겼다.

스웨덴 국적의 한 훈련생은 죄의 반역성과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해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갑자기 강의실을 나가버렸다. 물어보니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장이 너무 뛰어서 듣기가 힘들어서 나왔다고 했다. 현장 선교사님은 이 아이가 망치로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아이들이 적어낸 기도 제목은 간절했다. '나의 소망 없음

을 철저히 보고, 내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게 실제 되도록. 계속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옛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사탄의 거짓말을 뿌리째 뽑아 주시고 진리를 듣고 순종하도록.' '집중! 중요한 것들을 적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이 캠프를 통해 선교사로 헌신한 미국 국적의 15세 참가자에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고 물었다. 그는 캠프에 오기 전부터 선교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생겼는데, 캠프에서 선교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자신을 주님께 선교사로 드리려는 헌신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둘째 주는 복음의 초대, 믿음, 십자가, 선교, 복음의 누림 등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졌다.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스웨덴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창조

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누리며 각 주제를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었다. 부모의 품을 떠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몸과 마음에 큰 위로와 안식을 얻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다.

두 주간의 복음 축제를 마치면서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한국 섬김이들은 다양한 국적의 여섯 명의 훈련생을 세상을 비추는 복음의 빛으로 파송하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부흥케 되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제는 복음이 절실한 선교지가 되어버린 유럽에서 다음세대를 복음으로 일으키는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이었다. 선교사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을 드린 현장 선교사님들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이 첫번 순종을 통해 이곳에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다음세대가 복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GPNEWS]

박연희 선교사



워크숍
지상중계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독교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반복적인 생각과 불안, 강박 장애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19)

강박 장애의 증상은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강박 장애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을 두 가지 모두 또는 어느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강박 사고에 따른 불안으로 인해 강박 행동으로 이어진다.

강박 사고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생각, 충동, 또는 이미지가 침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말한다. 오염에 대한 생각, 공격적이거나 난폭한 생각, 성적인 생각, 신성 모독적이거나 도덕 관념에 대치되는 생각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더러워지는 것이나 세균에 대한 염려가 반복적으로 들거나 뽀족한 물건을 보면 혹시 내가 찔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부모님 같이 말도 안 되는 대상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등 그 내용은 다양하다. 이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조절하기가 어렵다.

'강박 행동'은 강박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수행하거나 자신만의 엄격한 규칙에 따라 수행하는 반복적인 행동이다. 문을 잠갔는지, 가스는 끄고 나왔는지 등에 대해 계속 의심이 들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손을 1시간씩 씻기도 하고 새 옷을 여러 번 갈아입기도 하고 샤워를 몇 시간씩 하기도 한다. 이러한 강박 행동으로 피부가 벗겨지거나 피가 나기도 한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하는데 걸을 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를 반복한다. 정렬 행동 즉,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거나 줄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함을 느낀다. 또 쓸모 없는 물건들, 남들이 보았을 때는 쓰레기 같은 것을 모아 놓고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 행동도 있다.

이는 생물학적인 원인이 강하다. 때로는 5살, 6살부터 강박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빈번하게 강박 장애가 발병하는 나이는 청소년 때부터 20대다. 이는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으면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계속> [GPNEWS]

북한 부흥을 위하여

北中間 여객열차 운행 재개... 정신 질환 北 노동자 300명 송환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코로나19 사태에 국경 봉쇄로 3년 7개월간 운행 중단됐던 북중간 여객열차가 지난달 31일 중국 라오닝성 단둥에서 출발해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로 들어간 가운데, 이 열차에 북한 노동자 30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4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이들은 대체로 건강에 이상이 있어 특

별 관심 대상으로 분류됐던 사람들로 코로나19 방역 강화 이후 기숙사와 작업장만 오가는 통제된 생활이 오래 지속되자 우울증·조울증·식욕 부진·수면 장애 등 정신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정상적으로 작업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 150~200명이 채용된 한 공장마다 정신 질환자 5~6명이 있었고, 대부분 식사가 하지 않고 멍하게 있기만 해서 혹여나 자살할까봐 간부들이 이들을 감시하는 데 애 먹었다."고 전했다.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 중 심각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

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기숙사 내에서 우울증을 겪던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

해 관리 간부들이 정신 이상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데리고 중국 병원 진료를 다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료비가 없는 데

다 북한 노동자들이 진료받기를 거부해 통원 치료를 지속하지 못했다. 북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정신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진료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GPNEWS]

유엔 “北 자연재해 위험 높아... 재난 대비 상태 매우 취약”

북한의 재난 대비 상태가 매우 취약해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전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20년 사이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북한 주민 5100만 명이 타격을 받

았고, 홍수로는 2463명, 폭풍으로 235명이 사망했다. 위원회는 2019년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자연재해 영향을 받았고, 이는 아시아 지역 중 최악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인프라 부족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더욱 악화돼 회복력 역시 부족하고 기계, 연료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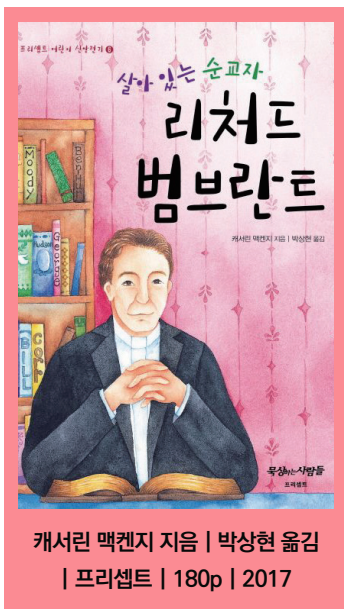
장비 수입 제한에 효과적인 대응 역량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이로 인한 식량 불안과 에너지 공급 부족, 영양실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최대 5일 누적 강수량에 따라

면 기후 변화에 따라 홍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조지대 농업 개선,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재난 위험 경감 역량 구축, 지역 협력 활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G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캐서린 맥켄지 <살아 있는 순교자 리처드 범브란트>

고난 중에도 순종한 증인들의 삶을 자녀에게 읽히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하며 아이와 함께 읽을 책들을 찾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선교사로 자신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이야기를 읽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어느 날 '프리셋 기

독교 신앙 위인전'을 보게 되었다. 선교사의 얼굴이 그림으로 그려진 첫 표지와 책 사이 사이에 들어간 삽화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읽기에 어렵지 않고 흥미를 끌 수 있었다. 나이가 어릴수록 성경 말씀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선교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생각했던 때에 이 책을 찾게 된 것이 감사했고, 아이와 함께 읽기 시작했다. 이 어린이 신앙전기 시리즈에는 '열정의 복음 전도자 디엘 무디', '달리기 챔피언 선교사 에릭 리들', '고아들의 영웅 조지 물러',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든 마틴 루터', '고통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코리텐 붐', '살아 있는 순교자 리처드 범브란트' 등이 있었다. 이들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기독교 역사에 남을 인물들이었지만, 책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삶은 아님을 아이에게 보게 하

다. 더욱이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만나주셨고, 불려주셨고, 타락한 시대 한복판에서 고난을 통과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선택한 이들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수선하던 어느 해 고난주간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리처드 범브란트의 회심과 고난을 주제로 한 영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았다. 잠깐잠깐씩 아이는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인상 깊게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아이는 이 책을 통해 '자신에게 순교란 두려운 것이었지만, 말씀을 붙들며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증인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둘째 아이(11)에게 말씀하셨던 독후감 내용을 옮겨본다. 『리처드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후 리처드가 살고 있는 루마니아는 공산주의가 되었다. 리처드는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로 향하던 그는 아무도 모르게 납치되었다. 결국 리처드는 죄수가 되었고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제오르 제쿠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리처드는 너무 무서웠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 버렸다. 그 후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이 도우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 책을 보며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리처드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과 같았다. 4번 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방 벽에도 JESUS라고 적고 간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리처드.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외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리처드 목사님을 기억할 것이고 리처드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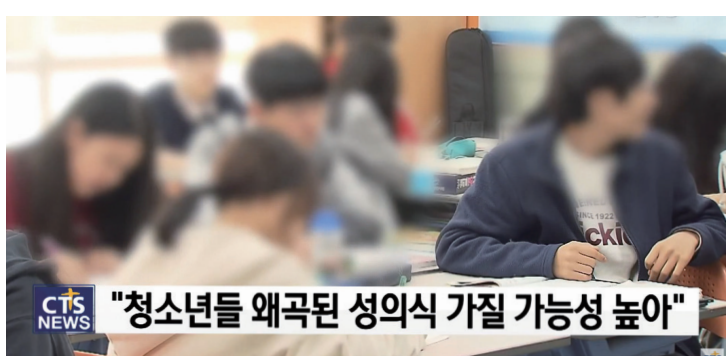
를 기도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나와 자녀의 모습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려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다. 그러나 세속화된 이때뿐만 아니라, 언제 다가올지 모를 고난과 박해를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읽어야 한다고 믿는다. 신앙 때문에 약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그 고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순종한 증인들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아야 한다. “주여!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음세대들을 세워주소서!” [GNNEWS]
정준영 선교사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어린이들에게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고 교육하지 말라

10년 전이었다. 지인을 통해서 들려온 얘기에 크게 놀랐다. 미국 초등 교사인 지인의 친구가 어린이들에게 수업시간에 “결혼에는 남녀 간의 결혼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이 있다고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그때는 귀를 의심하며 생각했다. ‘어린이들이 이성 간의 결혼이 뭔지도 잘 모를텐데... 동성 간의 결혼을 이성 간의 결혼과 동등한 개념으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한다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라고?’ 그런데 루머가 아닐까 의심했던 일이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로 닥쳤다. 차별금지법을 진보적 정당들이 계속해서 발의하니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 조항을 따라 학교 교육의 내용도 모두 바뀌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교육하도록 교육시스템과 사회 전반을 모두 바꾸는 법 조항이 포함된 법’임을 국민들은 모른다. 차별금지법의 제목만으로 법 정신을 짐작해서 긍정적이던 사람들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벌어질 일을 알게 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의 없이 조용히 하려고 하는가? 굉장한 대담함이다. 독자자들에게 질문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독자가 이런 질문에 ‘사람을 무시하나? 답은 뻔하지.’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참으로 다행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절대 다수다. 어떤 분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어린이들도 그런 교육을 받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안됩니다.’이다.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안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어린이들에게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유치원과 학교 교육은 어린이들의 ‘기준’을 형성하는 작업이므로 중요성이 크다. 비언어적이어서 더 강력한 학습을 한다. 5~6세가 되면 결혼과 성 역할에 대해 학습된 강한 ‘전제’가 있는데 이를 흔들는 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은 당황과 불안, 더 나아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사춘기에 동성애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사춘기는 성적인 감각과 호기심이 자라고 성 정체성이 불안정한 시기로서 ‘일시적으로’ 동성애적인 느낌이 스쳐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때 무의식에 터부(taboo)가 있어서 동성애를



행동화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애로 자리 잡히는 게 정신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상적인 성 정체성 발달’의 과정이다. 그런데 만약 동성 간의 연애와 결혼이 기준의 자리로 심기위했다면, 이성애로 자연스럽게 돌아올 기회를 빼앗길 가능성이 커진다. 이 지점에서 동성 간의 연애와 결혼이 왜 안되냐고 묻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생겼을 수 있겠다. 근거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에 질문과 이의를 강력하게 제시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언급할 지면이 부족하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미친 치명적인 영향의 통계가 나와 있다. 영국의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33배가 늘었다고 한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는 반의 남자아이들 25%가 동성애자라고 한다. 미국의 모 여자 대학교에서는 동성애가 너무 당연한 행위여서 열 명 중 여섯은 한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미 이렇게 영향력이 입증된 해외에서의 통계를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구현할 이유가 무엇인가? 법 정신이 정의에 기반했을 것임을 믿는 믿음이 사실 파악을 방해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인 것 같다. [GNNEWS]
박희정 의사(연세해피마인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3. 8. 16 ~ 9. 6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혜령 김경선 김광희 김득기 김선희 김성훈 김신애 김애심 김정희 김형숙 김혜신 남궁주 박경희 박신희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오현아 유영권 윤미자 이노아 이삼연 이상현 이세라 이영선 이영옥 이재인 이조연 이종훈 이주선 이진희 정금자 정옥영 정요한 조명숙 조형광 존/정희 최영석 최점옥 홍찬일 황일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새순교회 썸 시흥교회 열매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오예그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춘천중부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